



안개비를 헤치고...

겨울비와 함께 광주·전남지역에 안개가 지속적으로 드리운 24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에서 한 시민이 안개 속을 뚫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시민발목 잡는 ‘밥그릇 파업’ 안돼”

## 내달 1일 호남권 택시운행 전면중단...광주서 대규모 집회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개정안(택시법)’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반발, 호남권 택시업계가 내달 1일 대규모 파업을 하기로 결의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이같은 택시업계의 움직임에 ‘시민발목 잡는 밥그릇 파업’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지역별 파업이 이뤄진다면 호남권에서 운행중인 3만여대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일선 택시 운전기사들은 운행 중단 등 파업 참여가 조합들의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정모(58)씨는 “택시법을 살펴보면 운전기사들 보

다는 회사나 법인들의 배만 불리는 내용이 많다”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할 상황에서 운행 중단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소식을 접한 회사원 김영석(45)씨는 “택시법이 통과되더라도 택시업체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와중에 운행중단을 하겠다는 건 시대착오

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택시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버스업계 역시 “고급 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데는 어폐가 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운수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문제 없다”

## 광주교법, 남구청 항소 기각

광주교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4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남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의료폐기장 건축에 따른 법적 쟁점과 관련

자료 검토한 결과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면서 “의료폐기장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도 지난해 7월 (주)한제가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남구는 지난 2009년 11월 양과동

의료폐기장(연면적 1127㎡) 건축허가를 내렸으나 2011년 광주시의 ‘양과동 의료폐기장 처리시설은 위법한 도시계획시설로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반복해 허가취소 처분한 바 있다. 남구는 당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소속 5~7급 공무원 6명에 대해 1개월 감봉, 견책 등의 징계도 내렸었다. 한편, 남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서울대 조국교수 논문 ‘자기 표절’ 의혹 논란 ‘사형제 소론’ 영문 중복 제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자기 표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지난 16일 생물학연구원 보스턴센터 브릭(BRIC) 사이트에 인터넷 언론사 기자라고 밝힌 이용자가 “조국 교수가 논문에서 자기 표절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이용자는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 ‘사형 폐지 소론’ 영문 초록이 같은해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된 조 교수의 영문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본문 일부를 표절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24일 “두 논문은 주제는 같지만 초점이 다르다. 중복되는 부분은 한국의 판례와 법안 소개 부분으로 이는 학계에서 허용되는 ‘2차 게재’이며 국문 논문 영문 초록 작성시 영문 논문 문장 사용은 표절 관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뉴스

###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6분 / 해질 17시 53분 / 달돋이 16시 18분 / 달질 05시 50분

지역	날씨	기온
서울	맑음	-5/0°C
부산	맑음	-5/0°C
대구	맑음	-3/1°C
대전	맑음	-7/-1°C
광주	맑음	-3/1°C
전주	맑음	-6/0°C
제주	맑음	-5/0°C
충청	맑음	-4/1°C
경남	맑음	-5/0°C
강원	맑음	-5/0°C
충북	맑음	-7/-1°C
충남	맑음	-2/1°C
전남	맑음	-7/-1°C
전북	맑음	-7/-3°C
경북	맑음	-9/-2°C
제주	맑음	-1/1°C

종류	종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관심	낮음	낮음

시간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26(토)	☀	-6/1	
27(일)	☀	-6/2	
28(월)	☀	-6/3	
29(화)	☀	-5/5	
30(수)	☀	-2/7	
31(목)	☀	0/9	

# 광주지역 일반계고 학생 무더기 탈락

## 시교육청 근시안적 수용 계획...전년대비 2배 증가 탈락 458명 특수지 학교 진학·타시도 유학 불가피

광주지역 특성화고에 이어 일반계고 학생도 무더기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의 수용계획 예측 실 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위

원장(교육의원,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올해 일반계고 탈락 학생 수가 지난해(226명)보다 2배 늘어난 458명(남 357명, 여 1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탈락자 중 78명은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예 타지에 유학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봤다. 이처럼 탈락자 수가 늘어난 것은 지원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지역 후기 일반계고 46곳의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5640명에서 올해 1만6948명으로 1308명이 늘어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1호

#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가격중심화

##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조그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란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할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 원인은 안구건조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이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런 검사도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그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뻐뻐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인다라한의원 원장 김동진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통-9818호 (광교)